

뚜빱 아마루 혁명: 반외세와 반기득권을 통한 원주민사회의 지향*

송영복(경희대 스페인어학과)**

- I. 들어가는 글
- II. 뚜빱 아마루 2세와 혁명.
- III. 뚜빱 아마루는 반외세이다.
- IV. 뚜빱 아마루는 반기득권이다.
- V.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페루, 멕시코,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과 같은 나라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원주민 인구 구성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에는 원주민적인 문화 양태도 많이 남아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도 원주민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원주민들은 여러 면에서 이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유럽의 아메리카대륙 정복 이후의 식민지시대에는 수탈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19세기에는 유럽적인 국가 모델에 반하는 근대화의 걸림돌로, 20세기에 들어서도 가난과 소외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전체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통틀어 사회밑바닥 노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AS1003).

** Young-Bok Song(Kyo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songyb@khu.ac.kr), "La Revolución de Túpac Amaru: para una sociedad indígena en contra de los extranjeros y las élites".

동 종사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항상 천대받는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나마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조금씩 생겨나면서 국가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구체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주민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비록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원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통합이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겨난 것도 이때부터이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원주민의 문제가 제도권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한다. 1920년도에 들어 페루 헌법을 통해 원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Gregor Barié 2000, 107~108) 그 이전까지만 해도, 특히 식민지시대의 원주민들은 정치, 경제적 최하층민이었고 생산에 종사하는 도구로서 가장 큰 의미를 띠고 있었다. 19세기에든 이러한 점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20세기에 들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인 최하층민으로서 절대빈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위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원주민들의 소외는 역사과정속에서 필연적으로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왔다. 식민지 기간과 독립이후의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민중의 반란은 계속되었다(*Historia del Perú* 2001, 28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원주민들의 저항의 역사는 페루와 볼리비아,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사회적인 성격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원주민들의 저항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즉 생존권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굶어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라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가 원주민 저항의 배경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원주민 저항은 사회 하층부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주민

과 관련한 주제는 하나의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민족이나 집단만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페루나 볼리비아와 같이 원주민이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민중, 서민, 하층민 혹은 일반 시민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그러한 저항의 역사를 돌이켜 오늘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은 라틴아메리카 민중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중심에 놓여있는 뚜빡 아마루는 페루의 역사상 원주민들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혹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뚜빡 아마루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뚜빡 아마루란 이름을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이름의 기원은 16세기 정복자들에 대항하여 싸운 뚜빡 아마루 1세, 그리고 18세기 말에 페루의 혁명을 주도하였던 뚜빡 아마루 2세이지만 그 쓰임은 유명세만큼이나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난다. 혁명가에서부터 게릴라단체의 이름, 거리의 이름과 학교이름 그리고 힙합가수의 이름에서도 뚜빡 아마루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뚜빡 아마루란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소재들로 다음과 같은 인물과 단체를 들 수 있다.

- * 뚜빡 아마루 1세 - 식민지 초기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을 하였던 인물
- * 뚜빡 아마루 2세 - 18세기말에 식민지 지배와 당시의 기득권 체제에 저항을 하였던 인물
- * 투빠마로스(Tupamaros) - 1960년에 창설되어 1972년에 사라진 우루과이의 도시게릴라
- * 뚜빡 아마루 혁명, MRTA(Movimiento Revolucionario de Túpac Amaru) - 1983년 조직된 페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단체, 1996년 페루주재 일본대사관을 점거하여 4개월간 투쟁
- * 투팍 아마루 샤커(Tupac Amaru Shakur) - 사회저항적인 노래를 주로 불렀던 미국의 흑인 힙합가수

뚜빡 아마루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소재들은 대부분 사회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게릴라의 이름에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극 좌파적인 이미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뚜빡 아마루 중에서 우리가 이번 연구의 중심대상으로 설정한 인물은 뚜빡 아마루 2세이다.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역사상 제일 큰 반란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뚜빡 아마루란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들고 있다. 물론 그가 뚜빡 아마루 1세의 이름을 따와서 자신을 스스로 뚜빡 아마루라 명명하였고 그래서 그를 보통 뚜빡 아마루 2세라고 부르고 있지만 뚜빡 아마루란 이미지를 가장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이 뚜빡 아마루 2세이다. 페루에서는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을 국가의 영웅으로 제일 많이 꼽는다. 페루에서는 이와 유사한 인물로 단연 미겔 그라우(Miguel Grau)장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칠레와 페루가 싸웠던 태평양전쟁이 만들어낸 영웅인 미겔 그라우 장군이 제일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버금가는 인물이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뚜빡 아마루(Túpac Amaru)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제일의 영웅으로 미겔 그라우와 뚜빡 아마루를 꼽는다. 이러한 결과가 다른 문화적인 정서에서 생활하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뚜빡 아마루는 원주민 출신으로(생물학적으로는 혼혈이다) 정부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그가 국가적인 영웅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기 힘들다. 미겔 그라우는 페루와 칠레 간에 일어났던 태평양전쟁에서 활약한 장군으로 영웅이 되는 이유가 그리 이상할 것이 없지만 혁명을 하다 잡혀 죽임을 당한 원주민출신의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특히 20세기 여러 반정부게릴라의 이름에 뚜빡 아마루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에 반하는 미묘한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 국가의 영웅으로 추앙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연구과정에서 뚜빡 아마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 결과 여러모로 이 사람이 페루 국민의 영웅이라는 점을 사회전반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뚜빡 아마루의 이미지가 영웅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Romero 1999, 188). 또한 페루의 많은 거리, 구(區), 학교 등의 이름에도 널리 쓰인다.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뚜빡 아마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페루의 대통령궁(Palacio de Gobierno)을 장식하고 있는 뚜빡 아마루의 초상을 들 수 있다.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Juan Velasco Alvarado) 대통령의 집권 시절인 1970년에 대통령궁의 가장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인 프란시스코 삐사로 살롱(Salón Francisco Pizarro)이 뚜빡 아마루 살롱(Salón Túpac Amaru)으로 이름이 바뀐다. 당시 원주민 문화를 대표하는 문명인 잉카를 멸망시킨 스페인의 장수 이름을 이들에 대항하여 반외세 투쟁을 전개한 원주민 혁명가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오늘날에 들어서도 현 대통령인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가 2003년 11월 28일 이 살롱에서 뚜빡 아마루 혁명 2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페루의 화가 아르만도 비예가스(Armando Villegas)의 보다 근엄한 뚜빡 아마루의 새로운 초상화를 그곳에 걸었다.

이 논문에서는 제일 먼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페루의 중요한 상징이 된 뚜빡 아마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뚜빡 아마루 혁명의 성격을 원주민적인 요소와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이해의 배경이 된다. 그가 주도한 혁명의 원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그리고 뚜빡 아마루 혁명의 내용에서 반외세적인 성격과 반기득권적인 요소를 분리시켜 관찰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반외세와 반기득권이라는 명제는 오늘날의 뚜빡 아마루가 가지는 이미지이기도하다. 반외세적인 성격과 반기득권적인 성격 속에 나타

나는 원주민적 가치, 체제, 문화에 대한 지향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싶을 것이다. 반외세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외세라고 하는 것은 1492년 사건 이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 사회를 붕괴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권력을 장악한 요소이다. 따라서 반외세는 필연적으로 실질, 감성적인 면에서 원주민사회로의 복귀라는 귀결점을 가진다. 즉 외세가 들어오기 이전 사회로의 복귀 혹은 외세를 물리치고 원주민 사회를 회복한다는 목표이다.

반기득권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외세와 그의 후손들이 기득권의 대부분을 장악한 식민지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희생양이 되었다. 원주민들의 상대적인 지위 하락이 에스빠냐 지배자들의 권력형성의 배경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배자들의 상류층 유지를 위한 원주민 수탈이 사회전반의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경제상황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런 역사적인 상황의 연속이 기득권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역시 기득권을 가진 자와 이에 대항하는 원주민들의 대결구도로 이어졌다. 원주민들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 역사와 이의 결과물인 인종적인 한계를 극복하려 시도하였다. 반외세나 반 기득권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것이 원주민 사회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배경이 여기에 존재한다.

반외세와 반기득권을 달성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뚜뻑 아마루 혹은 당시 페루의 민중들이 요구했던 것이 원주민 사회로의 복귀, 원주민들의 권리 찾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현대 페루사회에서 역시 반외세, 반기득권이라는 비슷한 요소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원주민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오늘날 페루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정의(正義)의 중심에 원주민의 문제가 놓여 있다. 반외세와 반기득권이라는 요소가 뚜뻑 아마루 혁명의 근간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원주민 사회로의 회귀 혹은 원주민들의 권리 회복이 된다. 결국 식민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 극복은 식민지를 만든 배경인 식민지화에 대한 부정, 저항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물론 변형, 왜곡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거치지만-

뚜빡 아마루란 이름이 현대 페루 사회, 정치, 경제적 모순 극복의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서 원주민의 문제, 나아가 하층민의 문제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II. 뚜빡 아마루 2세와 혁명

- 뚜빡 아마루 혁명의 원인

뚜빡 아마루 봉기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식민지시대의 폭정에 시달린 민중, 특히 원주민들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백년간의 식민지 지배구조가 가지고 있었던 모순에 대하여 저항한 것이다. 따라서 뚜빡 아마루 혁명은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해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없다. 뚜빡 아마루 이전에도 크고 작은 혁명이 꾸준히 있어 왔다. 대략적으로 뚜빡 아마루 혁명 이전 18세기에 페루와 볼리비아 근방에서 발생한 주요 반란사건의 시기와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37년 - 아산가로(Azángaro)
- 1738년 - 비야 데 오루로(Villa de Oruro)
- 1742년 - 그란 빠호날, 빠레네, 켄로 데 라 살(Gran Pajonal, Perené, Cerro de la Sal)
- 1750년 - 우아로치리(Huarochirí)
- 1766년 - 끼또(Quito)
- 1770년 - 씨까씨까(Sicasica)
- 1771년 - 빠까헤스(Pacajes)
- 1773년 - 산티아고 데 추코(Santiago de Chuco)
- 1774년 - 춤비비빌까스(Chumbivilcas)
- 1774년 - 비야 데 야따(Villa de Llata)
- 1776년 - 우루밤바(Urubamba)
- 1780년 - 빠삭, 꾸스꼬(Pisac, Cusco)

뚜박 아마루 혁명은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시대의 총체적인 모순과 불만을 표현한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저항을 결집하여 한시기에 폭발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뚜박 아마루의 봉기는 그 규모나 역사적인 의의, 정치적인 영향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아메리카대륙 식민지시대의 가장 중요한 민중봉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식민지기간 중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꼽는 가장 실질적인 원인으로 식민지정부의 민중에 대한 착취를 들 수 있겠다. 특히 원주민들의 절대적인 빈곤이 혁명의 중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페루와 볼리비아 고원지방에서 발달하였던 광산에서 징수하던 세금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하였다. 식민지시대의 광산노동자 한 명의 경제적인 가치는 한 마리의 노새보다 못한 상황으로 원주민들은 거의 무료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Hermosa Virreira 1979, 63, 64). 이렇게 광산 노동에 종사하는 하층민들의 열악한 삶은 극단적인 행동을 불사하게 만들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조세부담도 18세기 말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상품 매매에 부과되는 세금인 알까발라(Alcabala)가 이 시기를 즈음하여 2%에서 6%로 인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었다. 또한 원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서민들의 구매품들도 값이 오른다. 하층민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주는 대중적인 술인 아구아르디엔테(Aguardiente)의 세금이 12.5%로 상향조정되어 그렇지 않아도 절대 빈곤의 상황에 처해있던 원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담뱃값 역시 인상되어 원주민들과 일반 민중의 경제 상황에 또 다른 불만요소로 작용하였다(Galindo 1989, 279-280).

이러한 분위기는 18세기 말에 들어서 구체화된 부르봉개혁(Reforma Borbónica)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720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원주민 인구가 500,000명이던 것이 1700년대 말에 이르러 650,000명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르봉개혁을 주도하던 에스빠냐 정부는 원주민들

에게 부과되는 서민적인 세금을 올림으로써 세수의 확장을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원주민들의 불만 축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혁명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뚜빡 아마루 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식민지 경영을 통해 축적되고 부르봉개혁을 통해 더욱 심화된 원주민들의 절대적인 빈곤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치, 사회적인 원인 또한 만만치 않다.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하나의 종합적인 원인과 현상이라 말 할 수 있지만, 하층민들의 사회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소외 등도 배경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식민지 초기에서부터 일부 원주민 지도자들이 지방의 호족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에스빠냐 지배자들의 하수인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엄격한 상하 구조에서 원주민들의 변할 수 없는 밀바닥 인생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주민들의 현 지배구조를 타파해야겠다는 의지와 이에 따른 필연적인 저항으로 발전할 요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뚜빡 아마루 혁명의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체제가 가지고 있는 상하구조의 고착화에 따른 반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를 극대화시킨 부르봉적인 개혁을 통해 더욱 심각해진 서민경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뚜빡 아마루와 혁명의 전개

뚜빡 아마루 2세의 본명은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칸끼(Jose Gabriel Condorcanqui 혹은 Kunturkanku)이다. 그는 1740년 3월 19일 뻘따(Pinta) 지방 원주민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인 미겔 콘도르칸끼(Miguel Condorcanqui)와 어머니인 로사 노게라(Rosa Noguera)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형의 죽음으로 외동아들이 된다. 16세기 후반에 식민지 체제에 대항하여 반란을 주도하다 1572년에 톨레도 부왕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뚜빡 아마루 1세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확실한 고증을 거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증명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뚜빱 아마루 2세 스스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인종적으로 그는 순수한 원주민 혈통은 아니며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이었다. 그의 가족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다른 원주민들에 비하여 부유하였다.

이러한 환경에 힘입어 꾸스코(Cusco)에 있는 산프란시스코 데 보르하(San Francisco de Borja)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1760년, 그가 만 20세가 되던 해에 미카엘라 바스티다스(Micaela Bastidas Puyucagua)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 그런데 이 여자의 집안 역시 당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함을 가진 계층에 속해 있었다. 그녀의 집안은 까라바야(Carabaya) 지방에 꼬까(Coca) 농장과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350마리의 노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방호족이었다. 호세 가브리엘(뚜빱 아마루)은 여러 번에 걸쳐 리마 등지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의 식민지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모순에 눈뜨게 된다. 특히 원주민들이 노예로 광산과 같은 곳에서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

결국 그는 식민지 정부의 제도권 내에서의 변화를 포기하고 1780년 에스빠냐 정부에 반기를 든다. 이것이 뚜빱 아마루 혁명의 시발점이 된다. 1200여명에 달하는 에스빠냐군대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는 꾸스코 집령을 목전에 두고 뚱가수까(Tungasuca)로 돌아가 에스빠냐 정부와 평화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전략적인 후퇴는 에스빠냐인에 대한 인종적인 차원의 저항이기보다는 부당한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최기의 정치적인 목표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된다. 전쟁에 따른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에스빠냐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반격을 하게 된다. 1781년 4월 5일과 6일, 양 일 간에 걸친 전투에서 뚜빱 아마루의 군대는 부왕의 군대에 패하게 된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뚜빱 아마루는 에스빠냐군의 벤뚜라 란다(Ventura Landa)장군에 의하여 같은 해 5월 18일 포로가 되어 그의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 애당초에는 사

지에 줄을 묶어 그 줄을 말이 당겨서 찢어 죽이는 사형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뚜빡 아마루의 몸이 워낙 튼튼해서 잘 되지 않았다. 이 방식은 16세기 말 에스빠냐 정복자에게 저항을 한 뚜빡 아마루의 처형 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이었다. 이런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쩔 수 없이 참수형에 처하게 된다. 그의 몸은 조각으로 잘려져서 머리는 창에 끼워져 꾸스꼬에 걸리고 팔과 다리는 반란군의 중심지가 되었던 퉁가수까(Tungasuca), 까라바야(Caraabaya), 리비따까(Livitaca), 산따로사(Santa Rosa) 지역에 각각 반역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걸려졌다.

그러나 뚜빡 아마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처형이 반란의 끝은 아니었다. 그의 이복동생인 디에고 크리스토팔 뚜빡 아마루(Diego Cristóbal Túpac Amaru)를 중심으로 반란은 또다른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북서부의 후후이(Jujuy)지역에 까지도 뚜빡 아마루 혁명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 누에바 그라나다(Nueva Granada) 부왕청 지역으로도 뚜빡 아마루 반란의 여파가 계속적으로 파급되었다. 이 지역의 반란군들은 아메리카의 왕이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반란의 기치를 높인다. 1782년에 이들은 에스빠냐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반란에 대한 죄를 사면해 줄 것과 원주민들에 대한 부당함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무기를 내려놓는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페루 원주민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뿌노(Puno)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폭력적인 양상으로 혁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태 발발 후 2년간 거의 원주민들의 자치적인 상태로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저항운동이 확산되었다(Tamayo 1982, 70). 볼리비아의 고원지방에서는 뚜빡 까따리(Túpac Catari)가 자신을 스스로 부왕이라고 칭하며 라빠스(La Paz)를 공략하였다(Finot 1998, 124).

일반적으로 뚜빡 아마루 혁명을 시대적, 지역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가 뚜빡 아마루 2세가 죽기 이전에 꾸스꼬를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난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가 뚜빡 아마루 사후 그의 가족이나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뿌노(Puno)와 그 인근 지방에서 혁명을 이어갔던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

다(Tamayo 1992, 407). 그렇지만 이 논문의 본문에서 말하는 초기와 후기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단계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고 다만 각 개별 지역에서 혁명이 시작하는 단계나 아니면 무르익었느냐를 기준으로 그 초기와 후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뚜빱 아마루 혁명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III. 뚜빱 아마루는 반외세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원인과 과정을 거쳐 18세기 말 독립이전의 상황에서 최고, 최후의 반식민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뚜빱 아마루의 혁명은 다양한 역사적인 이해와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시대나 성격 구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여기에서는 뚜빱 아마루의 봉기를 크게 반외세적인 성격과 반기득권적인 성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 중에서 혁명의 반외세적인 성격을 살펴보자.

혁명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초기의 활동이 반외세적인 성격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애당초 뚜빱 아마루 자신도 봉기를 하기 전에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청원을 하였던 것을 보면 식민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반외세, 즉 에스빠냐가 주도하는 식민지 정책에 대한 반기이다. 그러다보니 봉기 초기의 활동들은 인종의 문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출발하였다. 초기의 이념은 정치, 경제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인종과 사회구조의 문제로 옮겨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많은 지역에서 불만의 폭발과 더불어 인종, 사회적 폭동의 성격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뚜빱 아마루의 공식적인 봉기 주체세력과 다른 사회적인 혼란세력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

요도 있겠다. 즉 봉기 조직 이외의 장소나 시간에 따라 이러한 반외세라고 하는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인종의 문제, 사회구조의 문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어찌되었거나 뚜빡 아마루의 봉기 초기 단계에서는 개략적으로 에스빠냐 정부에 대항한 반외세적인 성격이 더욱 짙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혁명기간에 반기득권과 차별될 수 있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정황들을 볼 수 있다. 같은 백인이라 할지라도 빼닌술라르(Peninsular)와 꼬리오요(Criollo)를 구분하여 처형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뚜빡 아마루 혁명군들은 백인을 찾아 빼닌술라르인가 꼬리오요인가를 확인하여 꼬리오요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적도 있다(*Revista Andina* 2, 415). 식민지 지배체제에 대한 반발이 혁명의 핵심이었던 바, 식민지 정부의 최고위층 인물인 꼬레히도르(Corregidor)와 같은 외국세력, 즉 빼닌술라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Revista Andina* 2, 413).

빼닌술라르는 에스빠냐에서 출생하여 아메리카 식민지에 관료로 와서 정치적으로 최고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뚜빡 아마루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페루 하층민들의 경제적 문제의 직접적인 장본인이라고 생각되어졌다. 그러한 이유로 혁명 초기의 화살이 이들에게 겨누어졌다. 반외세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양상이 바뀌어 근본적인 인종문제로 까지 심화되어 꼬리오요에게도 공격을 가하게 되지만 혁명의 초기에는 꼬리오요들에게 덜 적대적이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물론 이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감안해야 한다.

페루 뿌노 지방의 경우 혁명을 주도한 호세 가브리엘(José Gabriel)이 람빠(Lampa)지방을 공격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방행정관인 꼬레히도르(Corregidor)의 관사를 파괴하는 것이었다.(Tamayo 1982, 72) 뿌노 근방의 추꾸이또(Chucuito)지방에서는 반란군에 의하여 발견되는 모든 에스빠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특수한 일만은 아니었다(Tamayo 1982, 73). 이

러한 현상들은 여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었다. 즉 반외세라고 하는 문제가 뚜빱 아마루 혁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공식적인 종교인 가톨릭과 가톨릭의 사제에 대하여 적대심을 품는 반외세적인 현상을 부분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종교분야에 있어서는 이종혼합(Sincretismo)의 영향으로 원주민 종교가 특별한 구분 없이 가톨릭과 혼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반란의 급진세력 중에서는 가톨릭의 성직자들을 부정하면서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Revista Andina*, 2, 418) 교회를 불태우는 일도 있었으며 종교사제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볼리비아 고원지방의 오루로(Oruro)시의 경우에는 로사리오 성녀(Virgen Rosario)에 대하여 적대감을 보이기도 하였다(*Revista Andina*, 2, 418). 일반적으로 종교분야에 있어서 원주민들은 가톨릭에 대하여 다른 식민지 지배의 장치나 전통들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종혼합의 과정을 통하여 전통적인 잉카의 신앙과 어우러진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사제들은 에스빠냐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혹은 지배정권의 일부로서 식민지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뚜빱 아마루 혁명시 원주민들이 성당과 사제 그리고 가톨릭 상징물이나 그와 관련한 것들에 적대감을 가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혁명의 주체세력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가톨릭을 외세로 보지는 않았으나 당시 에스빠냐 정부의 운영체제를 돕고 있는 조직으로서 하층민들의 현실적 절대빈곤의 문제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한 외세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톨릭자체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가톨릭을 표방한 정치, 경제적인 외세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뚜빱 아마루나 다른 반란의 주도자 중의 한 명인 뚜빱 까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로 표현하였던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톨릭이

일반 민중 사이에 상당히 보편화된 설득력을 가진 신앙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중혼합 과정을 통해서 원주민 신앙과 접목하여 300여 년 간의 기간 동안 토착종교화된 라틴아메리카적인 가톨릭은 원주민들이나 하층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지 않았으나 종교의 정치, 경제적인 기능과 역할이 봉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게 한 원인이 된다. 뚜빡 아마루 혁명을 통해서 보여준 가톨릭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의미에서 기득권에 대한 공격과 엄밀하게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반외세의 시발점은 외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는 시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미지역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16세기에서부터 반외세적인 저항이 크건 작건 간에 혹은 많건 적건 간에 꾸준히 있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원주민 사회로의 복귀라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점이 존재한다. 외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외세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동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뚜빡 아마루 혁명을 포함한 다른 많은 식민지체제에 반하는 저항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원주민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 원주민사회의 회복이라는 지향점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논리적, 현실적인 면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발상이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외세의 당연한 귀결점으로서의 원주민 사회로의 복귀는 원주민들에 의해서만 주장된 것이 아니다. 혼혈과 *끄리오요*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오히려 정치,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혼혈과 *끄리오요*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폭이 넓었다. 이것을 오펠란은 잉카적인 유토피아로 설명하고 있다(O'Phelan 1995, 13-45). 반외세, 즉 에스빠냐의 종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선이 멈춘 곳이 원주민사회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도 반외세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원주민적인 요소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세 ⇔ 원주민

IV. 뚜빱 아마루는 반기득권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뚜빱 아마루 혁명의 시발점은 반식민지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외세가 만들어 놓은 식민지 체제를 변혁 혹은 타도한다는 것이 혁명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외세라고 하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반기득권의 성격으로 발전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아메리카대륙 정복의 상징적인 해인 1492년의 사건을 계기로 외세, 즉 에스빠냐인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기득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전체 식민지기간 중에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와 라틴아메리카의 일반적인 사회구성 원칙이 되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화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사회계층이 생겨나게 된다. 그들이 바로 *끄리오요*이다. 이 *끄리오요* 집단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외세는 아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분석하고 있는 뚜빱 아마루 혁명의 반외세적인 성격과 반기득권적인 성격을 구분해서 생각해볼 때 이 *끄리오요* 집단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에스빠냐인들의 후손으로 아메리카대륙에서 태어나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끄리오요* 집단은 에스빠냐에서 온 빼닌술라르와는 차별화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만들었다. 이들은 식민지 통치자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이어받아 토착화된 기득권을 형성하였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빼닌술라르와 비교하여 이인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외형적으로 중요한 요직에는 빼닌술라르가 집권을 하고 있었으나 *끄리오요*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기득권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빼닌술라르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또한 외세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이미 300여 년 간에 걸친 식민지 기간 동안에 토착화되어 외세라고 하기보다는 라틴아메리카의 토착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즉 외형적으로 볼 때 기득권이기는 하지만 외세는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득권층은 인종적으

로 외세인 에스빠냐인들로부터 나왔다. 또한 에스빠냐인들이 원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든 권력과 부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페루부왕청 지역 하층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에 이들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반외세로 시작한 뚜빡 아마루 혁명이 필연적으로 반기득권 그리고 반끄리오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뚜빡 아마루 혁명 초기에는 현재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일차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에스빠냐 정부의 인사들이나 고관들, 즉 빼닌술라르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혁명의 분위기가 여러 지역으로 심층,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중들의 요구 또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희생 대상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끄리오요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이전까지 억눌려서 표출되지 않고 쌓여있었던 불만이 폭넓은 사회기득권을 형성하였던 끄리오요들에게 향하게 된다. 결국 빼닌술라르와 끄리오요의 인종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는 백인 전반에 대한 공격의 양상으로 뚜빡 아마루 혁명은 건잡을 수 없이 발전한다.

여러 지역에서 봉기가 본격화되면서 백인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란군들이 한 지역을 공격할 경우가 지역에서 발견되는 모든 에스빠냐인의 외모를 가진 사람을 처형하였다(Tamayo 1982, 72-73). 이러한 현상은 뚜빡 아마루 혁명 이후의 반란사건에서도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득권, 백인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인종간의 갈등은 인종에 따른 권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885년 페루의 안카시(Ancash)지방에서 일어난 아투스빠리아(Atusparia) 혁명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종적인 대결양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Stein 1988, 49-50). 페루와 볼리비아의 혁명은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항상 인종적인 갈등의 양상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들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였던 메스띠소들에게까지도 불만이 표출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인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식민지 역사과정 속에서 생성된 사회적인 모순을 끄집어내면서 사회, 인종적인 문제로 급속도로 전이해 간 것이다. 결국 원주민들의 권리 회복, 정치적인 정의, 경제적인 착취구조타파, 사회적인 모순극복 등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그 방향성이 모든 외세에 대한 부정 그리고 모든 기득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으로 심화된다. 그리고 외세와 기득권을 대표하는 백인과 착취와 억압을 감내했던 원주민간의 전쟁이 된다.

당연히 혁명의 주체세력이 원주민지향성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원주민사회로의 복귀, 원주민적인 가치의 회복 등의 형태가 곳곳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혁명 기간 중에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원주민언어를 사용하고 원주민복장을 입도록 명령하는 등 원주민적인 가치에 중심을 둔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Revista Andina* 2, 415) 그들이 표방하는 바도 ‘잉카 정부의 복구 (Restauración del gobierno de los Incas)’이다. 이러한 잉카적인 가치, 고대원주민적인 가치의 지향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도 광산의 독점을 반대하고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등(*Revista Andina* 2, 420; O'phelan 1995, 14, 21-37) 구체적인 면에서 에스빠냐의 아메리카대륙 침략이전의 원주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로의 복귀 혹은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변화, 발전되어가는 뚜뻑 아마루 혁명은 기득권의 파괴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빼닌술라르와 꼬리오요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인 메스띠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 원주민사회의 복구와 연결된다.

뚜뻑 아마루 혁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원인도 과도한 적대세력의 형성이라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초기의 반외세적인 성격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세력에 대항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중도적인 혹은 찬성의 입장에 있던 꼬리오요와 메스띠소의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꼬리오요와 메스띠소는 혁명에 동참하거나 좌시 하였던 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서부터 생존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방향

으로 흘러간, 즉 반기득권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 혁명에 반하는 세력이 된다. 그리고 혁명군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당시 실질적인 면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실권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던 끄리오요와 메스띠소가 혁명세력에서 완전히 이반하여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혁명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점들은 뚜빡 아마루 혁명의 반기득권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 ⇔ 원주민

V. 나가는 글

뚜빡 아마루라고 하는 인물은 페루국민들의 영웅으로 다양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민족의 상징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최초의 뚜빡 아마루는 16세기 에스빠냐에 대항하여 투쟁한 사람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뚜빡 아마루란 이름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뚜빡 아마루 2세이다. 그는 18세기 말 에스빠냐 정부의 파행적인 식민지 운영으로 인한 민중들의 퍽박을 견디다 못해 일어난 혁명의 지도자였다. 뚜빡 아마루 혁명은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대륙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반체제적인 반란이었다.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파급 효과는 지대하여 이후의 식민지 경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체제의 몰락에도 일조를 하였다.

뚜빡 아마루 민중봉기는 반외세적인 성격과 반기득권적인 성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계적으로 나누어 볼 때 혁명의 초기과정에서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봉기의 원인이나 그들의 요구사항이 정치, 경제의 현상적인 면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혁명 초기의 발발 원인이 사회적인 문제, 더 나아가 인종적인 문제에까지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혁명의 확대에 따라 반외세적인 면이 점차 반기득권적인 면으로 진행되었던 것도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경우도 많았다.

뚜뻑 아마루 혁명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반외세, 반기득권- 다 가지고 있고 어떤 하나를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비록 뚜뻑 아마루 사후에 반기득권적인 성격이 더욱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뚜뻑 아마루 혁명이라는 사건은 식민지가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모순 극복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극복의 핵심에 원주민의 문제가 존재한다.

반외세와 반기득권이라는 요소가 뚜뻑 아마루 혁명의 근간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원주민 사회로의 회귀 혹은 원주민들의 권리회복이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결국 식민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 극복은 식민지를 만든 배경인 식민지화에 대한 부정(반외세)이고 이는 원주민 사회로의 환원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식민지화 과정에서 기존의 원주민들은 소외된 상태에서 외부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그들 만에게 분배된 권력과 부가 식민지 모순의 총체로 인식하는데에서 시작한 혁명이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대한 부정(반외세)과 그들이 형성한 기득권에 대한 부정(반기득권) 혁명의 중심사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외세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을 부정하고 나니 남는 것은 기존 외세침입이전의 사회에 대한 갈망이다. 혼혈의 과정을 통해 새로 태어난 중남미 사회에서 비록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언정 원주민 사회에 대한 지향은 실질, 상징적으로 혁명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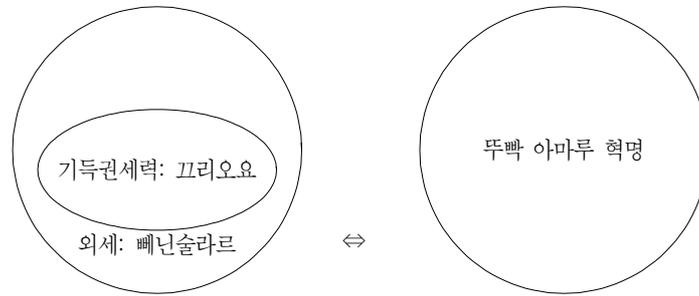
1492년이라는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상징적인 연도를 시작으로 형성된 식민지 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원주민 체제를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탄압, 파괴하였다. 그 결과가 원주민들의 권력부재, 경제적인 절대빈곤, 사회적인 하층민화 현상 등 하나의 시리즈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뚜뻑 아마루 혁명을 불러일으킨 식민지 체제의 모순이 되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뚜빡 아마루 혁명의 내용과 지향점에 원주민 사회로의 환원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원주민 사회로의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체제 부정의 당연한 결과이자 뚜빡 아마루 혁명의 중요한 행동강령이고 목표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뚜빡 아마루란 이름이 페루 국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궁을 장식하는 그림, 거리의 이름, 학교의 이름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국가의 영웅으로 인기가 높은 뚜빡 아마루라는 이름은 페루의 오늘날 현실이 뚜빡 아마루의 18세기 투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는 이 주제와 연관시켜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현재에도 대다수의 하층민들은 대부분 백인인 기득권층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500여 년 전에 형성된 문제가 꾸준히 이어와서 뚜빡 아마루란 상징적인 사건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연속적으로 오늘날에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뚜빡 아마루의 반란은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뚜빡 아마루를 영웅으로 삼는 페루 국민들의 정서 속에 식민지 체제에 대한 부정, -현 기득권 체제에 대한 부정- 원주민 사회에 대한 향수라는 점이 내재되어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이 뚜빡 아마루에게 보내는 민중들의 애정과 바램, 즉 본질을 왜곡할 수는 없다. 그래서 뚜빡 아마루는 오늘날 페루 사회 민중의 영웅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본질의 핵심에, 즉 불평등, 모순의 중심 주제에 원주민의 항변과 권리회복을 위한 뚜빡 아마루 혁명의 투쟁 정신이 숨어있다.

이렇게 볼 때 뚜빡 아마루를 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페루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시각은 각기 다를 수 있다. 뚜빡 아마루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보면서 페루의 하층민들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항하여 싸웠던 그를 생각하며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백인들을 물리쳐준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페루의 기득권층은 외세에 대항하여 국가의 주권을 공고하게 해 준 뚜빡 아마루를 생각하며

반외세적인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투팍 아마루에게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반기독교권과 반외세라는 이 논문에서 분석한 틀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 이를 구분하여 오늘날의 투팍 아마루를 대하는 페루 국민들의 의식과 현실의 문제를 조명하는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차후 연구의 과제로 삼는다.



<그림 1>

Abstract

Túpac Amaru es un héroe popular que proyecta varias imágenes simbólicas tanto del Perú como otros países del continente americano. El convocó una lucha contra la colonia española. Su movimiento fue reconocido como la rebelión más grande del continente americano durante la etapa colonial. Así provocó muchos cambios del sistema gubernamental. Y finalmente aceleró el colapso de 300 años de colonización.

La característica de su lucha se puede dividir en dos tipos: en contra de los extranjeros y las élites. El concepto en contra de los españoles fue enfatizado al principio de la revolución. Pero consecutivamente la revolución tomó su postura fija en contra del derecho adquirido de las

elites, el cual era poseído no nada más por los peninsulares, sino también por los criollos.

La revolución exigía extremadamente la abolición de todo tipo de derecho adquirido, así que se resalta la negación de la existencia de los europeos. Por otra parte, la de indígena podría servir como una meta ideal de los revolucionarios. Recuperar lo anterior, o sea lo prehispánico, quitando los elementos de los europeos, sería una solución física y directa de los insurgentes túpac-amaristas. Porque los europeos eran los que trajeron las causas de la inquietud de los aborígenes. Y de la misma manera ellos -los españoles- crearon y se apoderaron todos los derechos y los recursos económicos de aquella sociedad. Así que el retorno a la sociedad de los indígenas fue una de las ideas y características más importantes de la revolución de Túpac Amaru.

Key Words: Latinoamérica, Indio, Perú, Tupác Amaru, Colonia /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페루, 뚜빡 아마루, 식민지

논문투고일자: 2005. 10. 13

심사완료일자: 2005. 10. 24

게재확정일자: 2005. 11. 22

참고문헌

- Finot, Enrique(1998), *Nueva Historia de Bolivia*, La Paz: Librería Editorial Juventud.
- Fisher, John(2004), “Etnicidad, insurgencia y sociedad en los Andes: el caso curioso del Perú, c.1750-1840”, *Revista Andina*, No. 38, pp. 65-85.
- Galindo, Alberto Flores(1989), “Las revoluciones tupamaristas: Temas en debate”, *Revista Andina*, Año 7, No. 13, pp. 279-287.
- Gregor Barié, Cletus(2000), *Pueblos indígenas y derechos constitucionales en América Latina: un panorama*, México: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 Hermosa Virreira, Walter(1979), *Breve Historia de la Minería en Bolivia*, La Paz : Los Amigos de Libro.
- Historia del Perú proceso económico, social y cultural*(2001), Lima: Colección de Letras y Humanidades, Aduni.
- O'phelan Godoy, Scarlett(1995), *La Gran Rebelión en los Andes: De Túpac Amaru a Túpac Catari*, Lima: PETROPERU.
- Romero Cornejo, Carmen y Escalante Marcotti, Lourdes(1999), *Mundo Vivo 3 Serie de Ciencias-Ambiente y Personal-Social para Primaria*, Lima: Norma.
- Stein, William W.(1988), *El levantamiento de Atusparia*, Lima: Mosca Azul Editores.
- Tamayo Herrera, José(1992), *Historia General del Qosqo Una historia regional desde el período lítico hasta el año 2000*, Cusco: Municipalidad del Qusqo.
- _____ (1982), *Historia Social e Indigenismo en el Altiplano*, Lima: Ediciones Treintaitrés.